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131

JCCT 2018-5-17

## 한국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 Attitude about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male-female in the middle age

박은아\*, 이은주\*\*

Euna Park\*, Eunju Le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 중년기 남녀의 인식 유형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42개의 진술문은 25명의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PC 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중년기 남녀의 인식은 3개의 유형 ‘분노-배척형’, ‘배려-수용형’, ‘경계-동화요구형’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인식 유형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중년기 남녀의 인식유형에 따라 다문화사회 인식증진 관련 중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중년기, 다문화사회, Q방법론

**Abstract** The study objective was to identify attitude types about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male-female in the middle age. Data was obtained from a total of 25 in the middle age with 42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used by PC QUANL program. The study result had shown the three types such as an anger-reject style, a concern-acceptance style, and a boundary-adaptation stype. All study participants had perception about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the study results would used the basic data to develop program considered the types according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 Middle age, muticultural, Q-method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의 진행으로 언어, 종교, 관습,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가 내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배경도 다양해졌다. 특히 19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단일민족이라는 신념으로 인해 고립된 사회를 형성해온 우리 사회도 다문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1], 2017년에 발표된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장기체류 외국인인과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주민 수가 2006년 1.1%에서 2016년 3.4%로 3배 이상 증가한 것[2]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인종, 종교, 가치관, 출신 지역과 문화가 다양한 사회를 말한다[3]. 인종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들의 사회적 혼합으로 촉진되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기

Received: February 17, 2018 / Revised: March 25, 2018  
Accepted: April 7, 2018  
\*\*Corresponding Author: vinuslee76@gmail.com  
Dept. of Nursing, Keimyung Univ, Korea

\*정회원, 부경대학교 간호학과(제1저자)

\*\*정회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2월 17일, 수정완료일: 2018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7일

존 가치체계나 사회질서에 근거했던 규범이나 윤리에 혼란을 초래하여 상이한 정체성이나 생활양식을 가진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 간 마찰과 소요사태를 일으키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4].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3]. 첫째, 서유럽식 다문화주의와 정책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 한국 다문화사회는 서유럽과 달리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유럽식 다문화주의는 과거 식민지 출신의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통합시키려는 우파의 의도와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좌파의 문화상대주의가 함께 영향을 미쳐 형성되었다. 반면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주민은 결혼이주민, 재중동포, 탈북자 등으로 가족결합 혹은 재이주형태를 통해 한민족에 결합하는 형식으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다문화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인 외국인근로자는 제도적으로 단기 거주만 허용해 왔기 때문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지 않아 정주이주민이 되기 어렵다. 둘째, 다문화사회 담론과 정책이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이주여성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문제가 부상하면서 한국사회 내 다문화사회 담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저액을 담당하는 공무원역시 정책대상자를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예산도 이들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주민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시민이 아닌 한국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정도 한국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들의 정치적 재사회화와 시민교육에는 관심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은 한국인의 이주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 한국문화와 관습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요구 등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5] 이에 대한 세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중년기의 시작 연령과 마감 연령은 각 개인의 특성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중년기의 시작 시기는 35-40세 사이로, 완료 시

기는 50-70세 사이로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6]. 중년기는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 갱년기 증상, 정체성의 위기, 개인적 성취의 한계 직면 등이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부모-자녀관계 갈등, 노부모 부양부담의 증가, 자녀의 독립,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이중역할 등이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급격한 사회변화, 형제자매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7].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중년기는 그동안의 경험, 능력,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안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7] 급속한 사회 구성의 변화는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과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8].

한국여성정책연구원[5]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20대와 30대에 비해 40대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낮았고, 특히 50대와 60대에서 20-30대에 비해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10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별 비교에서도 영남권 응답자의 다문화수용성은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 교육학, 간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으나 그 내용은 주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이거나 다문화 이주자에 대한 경험을 확인한 질적연구이었다. 그러나 Q방법론을 이용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고[9], 해당연구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다. 따라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개념에 대한 개인의 태도, 신념, 인식 및 가치관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이용하여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중년기 남녀의 인식유형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한다.
-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중년기 남녀의 주관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Q방법론적 접근을 이용하였다.

### 2. 표집방법

#### 1) Q모집단 및 Q표본의 선정

일차적으로 문헌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에 관한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학술지, 전문잡지, 서적과 신문 등을 이용하여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진술문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27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또한 보다 실제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남녀대학생, 30대 회사원, 중년기 부부, 남녀 노인 등이 포함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생활, 가정, 직업, 사회문화 영역 등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 대상자 한 사람당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2시간 정도였고 면담에 대한 동의를 받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항을 녹음하고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된 진술문은 92개이었으며, 위 두 단계 과정을 거쳐 총 219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Q표본 선정을 위하여 20~100개 또는 40-60개의 표본이 보편적[10]이라는 전제하에 추출된 219개의 Q모집단을 중심으로 간호학과 교수 1인과 Q방법론 전문가 2인의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거쳐 변별력이 높은 최종 42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 2) P표본 선정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으로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연구이다. 이는 P표본의 수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P표본이 커지면 한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표본이론을 따르게 된다[10]. 본 연구에서의 P표본은 40-64세 사이 중년기 남녀로써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Q 표본분류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Q표본으로 선정된 42개의 진술문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찬성하는 항목에서부터 가장 반대하는 문항의 9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효과적인 Q분류를 위해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의 주제를 간략히 설명하고 주어진 Q카드를 대상자의 견해에 따라 찬성(+), 중립(0), 반대(-)의 3그룹으로 나누게 하여 찬성하는 진술문은 오른쪽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립적인 것은 중간에, 그리고 반대하는 진술문은 왼쪽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찬성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가장 긍정(동의함), 그다음 긍정의 순으로 Q진술문을 배치하도록 하였고, 다음은 반대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가장 부정(동의하지 않음), 그다음 부정의 순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립 의견에 나머지 진술문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때 Q요인 해석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하기 위하여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 중 각각 2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면담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P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IRB No. 1041386-20170220-HR-003-03)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면담 및 q표본 분류 전에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면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었다. 자료수집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 및 사적인 상황의 보장 그리고 참여자가 원하면 면담이나 질문지 작성 도중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q표본 분포표에 강제 분포된 카드를 중심으로 -4에 1점, 중립 5점, +4는 9점 등으로 각각에 부여된 변환점수를 점수화하였다. 부여된 변환점수를 q표본 번호순으로 코딩하여 PC-QUANL program에 의한 주인자요인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적인 요인 수의 결정을 위해 아이겐 값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켰으며 산출된 결과를 통해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3개의 유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Q유형의 형성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중년기의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3개 유형은 전체변량의 61.9%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 유형별 변량을 살펴보면 제 1유형은 33.40%, 제2유형은 21.48%, 제 3유형은 6.15%로 나타나 제 1유형이 대상자의 주관적 견해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

이들 각 유형에 분류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는 Table 1과 같다. 각각의 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서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 또는 이상적인 사람임을 나타낸다.

#### 2. 유형별 분석

중년기 성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Table 2).

#### 1) 1유형: 분노-배척형

유형 1은 외국인 이주자가 많은 지역은 위험하고(Q11, Z=1.83), 사회문제나 범죄율을 증가시키며(Q7, Z=1.69), 한국문화를 훼손시킨다(Q6, Z=1.46)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사람이 지출하는 세금을 증가시키며(Q10, Z=1.44), 한국인의 순수한 혈통을 훼손시키고(Q8, Z=1.43), 우리의 복지자원을 빼앗아간다(Q9, Z=1.00)고 생각한다. 반면,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Q41, Z=-1.87), 다른 문화를 알기 위해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는 것(Q32, Z=-1.77), 이들의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쉽게 하는 것(Q15, Z=-1.43),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특혜를 주는 것(Q42, Z=-1.11) 등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유형 1의 전형인 18번 대상자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의 역사성을 가진 나라로써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은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세금은 자국민과 자국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진입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Eigen Value, Variance, Factor Weights.

Table 1. Eigen Value, Variance, Factor Weights, an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

Type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N	ID	Factor weight	Gender	Age	Education	Personality
1	8.3501	.3340 (.3340)	8	15	3.7098	F	64	Elementary s.	Introverted
				17	5.9018	M	63	University	Extroverted
				18	7.9140	F	63	Elementary s.	Extroverted
				19	4.0780	F	61	Elementary s.	Introverted
				20	6.6731	F	64	Elementary s.	Introverted
				21	5.7506	F	63	Elementary s.	Introverted
				22	0.6720	F	62	Middle s.	Introverted
				24	4.3795	F	64	Elementary s.	Introverted
2	5.3704	.2148 (.5488)	14	1	0.7914	F	41	Graduate S.	Introverted
				2	0.5504	M	40	Graduate S.	Introverted
				4	1.0417	F	47	Graduate S.	Introverted
				5	0.9596	M	47	Graduate S.	Introverted
				8	0.5394	M	40	Graduate S.	Introverted
				9	0.7771	M	49	Graduate S.	Introverted
				10	1.5679	M	48	Graduate S.	Extroverted
				11	1.0385	M	49	Graduate S.	Introverted
				12	0.7925	M	64	University	Extroverted
				13	0.8396	M	60	Graduate S.	Introverted
				14	3.8325	M	64	High s.	Extroverted
				16	1.9097	M	63	University	Extroverted
				23	2.3432	F	62	High s.	Extroverted
				25	2.3488	M	64	Middle s.	Extroverted
3	1.5368	.0615 (.6109)	3	3	1.1273	M	48	Graduate S.	Introverted
				6	0.6289	F	40	University	Introverted
				7	2.9787	F	41	University	Extroverted

표 2. 연구대상자의 문화 인식 유형에 따른 항목별 Z-Scores

Table 2. Descending Array of Z-Scores(Greater Than 1) and Item Descriptions for Each Type

Type	No	Q statements	Z-SCORE
1	11	외국인 이주자가 많은 지역은 위험하다	1.83
	7	외국인 이주자는 사회문제나 범죄율을 증가시킨다	1.69
	6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문화를 훼손시킨다	1.46
	10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 사람이 지출해야 할 세금을 증가시킨다	1.44
	8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인의 순수한 혈통을 훼손시킨다	1.43
	12	학교에 이주민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1.40
	4	자국과 다른 인종,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1.09
	31	외국인 이주자는 오만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1.04
	9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인의 복지자원을 빼앗아간다	1.00
	42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배려하여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1
	33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1.12
	34	나는 다른 문화권의 건강 관습에 대해 알고 있다	-1.37
	15	합법적 외국인 이주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43
	25	결혼 이주여성은 이혼하기 쉽다	-1.46
	40	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동참할 것이다	-1.46
	32	나는 다른 문화를 알기 위해 책이나 자료를 찾아본다	-1.77
	41	나는 다른 인종,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7
2	37	나와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
	33	나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1.56
	27	결혼 이주여성은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1.51
	39	나는 다른 인종,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5
	13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가경제를 잘 지탱할 수 있게 해준다	1.36
	21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1.32
	35	현재 한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한다	1.30
	36	나는 다문화가정 사람들도 한국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1.29
	28	외국 문화는 한국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1.02
	24	결혼 이주여성은 학력수준이 낮다	-1.05
	23	다문화 지원정책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1.06
	5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1.15
	6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문화를 훼손시킨다	-1.19
	12	학교에 이주민 자녀들이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1.36
	20	외국인 이주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1.39
	9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인의 복지자원을 빼앗아간다	-1.41
	31	외국인 이주자는 오만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1.69
8	외국인 이주자는 한국인의 순수한 혈통을 훼손시킨다	-1.95	
3	30	우리가 사는 공간이므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 밖에 없다	1.86
	38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	1.67
	23	다문화 지원정책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1.58
	7	외국인 이주자는 사회문제나 범죄율을 증가시킨다	1.53
	39	나는 다른 인종, 민족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2
	22	외국인 이주자의 노동권과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1.47
	11	외국인 이주자가 많은 지역은 위험하다	1.31
	4	자국과 다른 인종,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1.24
	16	부모의 인종, 민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31
	18	외국인 이주자가 자기나라 언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도록 지원해야 한다.	-1.49
	15	합법적 외국인 이주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8
	42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배려하여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4
	14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1.78
21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1.95	
CONS	22	외국인 이주자의 노동권과 인권문제는 심각하다	1.07
ENSUS	42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배려하여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9

종합적으로 유형 1에서의 중년기 성인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분노-배척형’으로 명명하였다.

## 2) 2유형: 배려 수용형

유형 2는 자신과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Q37,  $Z=2.00$ ), 차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Q39,  $Z=1.45$ ), 이들도 한국사회의 일원(Q36,  $Z=1.29$ )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에게 고정관념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Q33,  $Z=1.56$ ), 결혼 이주여성에게 사회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Q27,  $Z=1.51$ )고 생각한다. 반면, 외국인 이주자가 한국인의 순수한 혈통(Q8,  $Z=-1.95$ )이나 문화를 훼손(Q6,  $Z=-1.19$ )하고, 오만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Q31,  $Z=-1.69$ ), 우리의 복지자원을 빼앗아간다고(Q15,  $Z=-1.43$ ) 등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유형 2의 전형인 14번 대상자는 ‘이주자들이 가지는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 나름의 고유문화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주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유형 2에서의 중년기 성인은 외국인 이주자와의 차이를 수용하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므로 이들의 적응을 위해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배려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 3) 3유형: 경계-동화요구형 : 의대생 2유형과 동일

유형 3은 우리가 사는 공간이므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고(Q30,  $Z=1.86$ ), 다문화가정의 사람들은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야 하며(Q38,  $Z=1.67$ ), 다문화지원정책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이 늘어나서는 안된다(Q23,  $Z=1.58$ )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의 노동권과 인권문제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Q22,  $Z=1.47$ ), 나와 다른 인종, 문화,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를 느낀다(Q4,  $Z=1.24$ )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필요성(Q21,  $Z=-1.95$ )이나 한국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이주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Q14,  $Z=-1.78$ ),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Q42,  $Z=-1.64$ ), 그들의 언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Q18,  $Z=-1.49$ ) 등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유형 3의 전형인 7번 대상자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서서히 포기하는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주자들은 한국사회의 문화에 잘 적응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적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유형 3에서의 중년기 성인은 외국인 이주자의 노동권이나 인권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변화하기 보다는 그들이 우리사회에 동화되어야 하며,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경계-동화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유형을 조사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밝혀졌으며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제 1유형은 ‘분노-배척형’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이 많은 지역은 범죄율이 높아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을 우리사회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노력에 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 1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60세 이상 여성이고, 교육수준이 낮고, 내성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연령대가 높은 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5]의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젊은이에 비해 6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제 1유형의 여성 대상자들이 60세 이상의 전업주부가 대부분으로,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아 TV나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뉴스를 통한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6]. 또한 길거리나, 상점 등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목격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지수가 높을 수 있는데[5] 이들은 대부분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자 목격빈도가 낮아 이주자에 대한 배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 등에서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가치교육을 통해 인종적 편견을 반성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6]. 또한 제 1유형에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는 여성정책연구원[5]의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대학원이상 교육군의 점수가 62.09점인데 비해 중졸이하 학력층의 점수가 47.83점으로 저학력층일수록 점수가 낮았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직업이나 교육경험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제 1유형의 대상자들에게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행사 참여 등의 기회 제공은 이들의 이주민에 대한 분노나 배척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1유형의 대상자들은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은 다문화 관련 봉사나 동호회 활동에서 적극성을 띄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개방적이지 못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지향이 필요하다.

제 2유형은 ‘배려 수용형’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다름과 이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인정하고 이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다. 제 2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40대와 60대가 고루 분포해 있고, 남성이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대학원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중년기는 자기개발을 잘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타인의 부적 특성에 대한 수용,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의 지향성을 가지는 시기[7, 11]라는 점에서 이러한 배려 수용형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이 많았다는 점에서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직장서 외국인 이주자를 만날 기회가 많으며, 다문화교육을 받거나 해외여행이나 거주경험이 배려나 수용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 2유형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중년층은 우리사회 내에서 이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제 3유형은 ‘경계-동화요구형’으로 다문화지원책으로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문화와 다른 인종이나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사는 이상 외국인이주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3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40대 남녀이었고 교육수준도 모두 대학이상이었다. 제 3유형의 사람들이 외국인 이주자를 경계하고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범죄율을 상승시키고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5]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사회가 실업율이 높고, 대학졸업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이주자에게 취업 등에서 특혜를 주는 것에 심리적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 유형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개방성과 포용력을 전제로 하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낮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중년층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년층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 및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그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다문화사회에 대한 중년층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유형은 분노배척형, 배려수용형, 경계동화요구형의 3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중년층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 경험 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기 남녀의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im Ju-A, Yun, Mil-AI (2018). Compare of muticulture between Korea and Japan-old newcomer and newcomer. Junnam University World Phnomenon Research Institute conference. 2018. 2 95-97.
- [2]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7) 2016 the local self-government Foreign present satus [http://www.mois.go.kr/frm/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0494](http://www.mois.go.kr/frm/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0494)
- [3] Song, Saem, Lee, Jae-Mook, (2018). Democratic Civic Education for the Encourag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Immigrants in Multicultural Societies. *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5, No. 1, 61-91.
- [4] Choi, Byung-Doo, (2017). Ethical Concepts and Space of Multicultural Society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ol. 23, No, 4, 694-715.
- [5]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5.11). An Analysis study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people.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6997>
- [6] Park, Jung-Hee, (2014). Conversion and embraced as a valuable education for a multicultural society. *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78, No. 4, 327-346.
- [7] Tae, Yong-Ahn,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Korean Midlife Resilience Sca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5, 2751-2781.
- [8] Kim, Min-Hee, Kang, Hyun-Joo (2017). The Trends of Research on Mid-life in the Field of Counseling: Focusing on Major Counseling Journals in Korea(2000~2016).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8 No.2, 1013-1029.
- [9] Lee, Na-Youn Lee, Eun-Nam, Park, Eun - Young (2013). The Attitudes of Nurses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241-250.
- [10] Kim, Hong-Gu, (2008). Q-methodology. Seoul: Communicationbooks.
- [11] Lee, Kyem-Ju,, Lim, Sun-Young, Kim, Su-Jin. (2015). Middle-aged woman, Stress, Hardiness,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4, 51-57